

# 탈식민주의 글쓰기와 장서 연구 - 도서관 장서의 편향성에 관한 사회사상사적 접근

## De-colonialism and the Collection Study - Research on Bias of Library Collection with Reference to History of Social Thoughts

김 영 기(Young-Gi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3. 한국사회 지식흐름과 도서관 장서 |
| 1. 장서연구의 의의               | III. 장서연구의 과제와 방법    |
| 2. 장서문제의 중요성              | 1. 도서관의 사회사          |
| 3. 탈식민성 담론과 장서 연구         | 2. 장서 형성 과정          |
| II. 도서관 장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3. 장서의 성향            |
| 1. 지식정보사회                 | 4. 장서연구의 방법          |
| 2. 지식과 정보의 왜곡현상           | IV. 결론               |

### 초 록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이며,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도서관의 장서는 그 생산과 수집, 그리고 축적의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왜곡으로 인한 굴절과 편향을 떨 수밖엔 없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현대사회의 지식·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이 연구는 장서연구의 필요성과 주요 해결 과제,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고찰이다. 장서 연구는 도서관 장서의 축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장서가 편향성을 띠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편향성의 현단계를 밝히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도서관 장서, 장서의 편향성, 도서관 사회사상사, 탈식민주의 글쓰기 장서연구

### ABSTRACT

The modern society is on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the library is one of the important routes through which they are obtained. But the collection in the library, from the onset of its creation and the process of accumulation, could only be bent and biased due to the prejudice and distortion, inevitably acting as an agent that mires the essence of the library as a distribution channel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modern society. This study is the discussion about the necessity, main assignment and the methodology of library collection study. The collection study needs to focus on the process of accumulating the collection in the library to track down the process of becoming biased.

Key Words: Library Collection, Bias of Library Collection, History of Social Thoughts, De-colonialism, Writing Style, Collection Study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kk@ks.ac.kr)

• 접수일: 2005년 2월 15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 I. 서론

### 1. 장서연구의 의의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이며,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다. 또한 도서관의 장서는 한 사회가 이루어낸 지적 생산물의 거대한 저장소로서 사회적 담론의 핵심 광장이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장서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그 생산과 수집, 그리고 축적의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왜곡으로 인한 굴절과 편향을 떨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현대사회의 지식·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도서관의 장서연구는 도서관 장서의 축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장서가 편향성을 띠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편향성의 현단계를 밝히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현대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 부르고 있지만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들의 삶의 경험과 사고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채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도서관의 장서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방송이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비해 꽤 긴 시간에 걸친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만 소화해낼 수 있는 책의 영향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장서는 그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선택, 변환 또는 왜곡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강요해 온 방향으로 치우친 채 축적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왜곡과 편향은 교정보다는 조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정사실화'의 연속형식이 이제는 '고착된 현실'이 되어 치유의지마저 거의 실종된 상태에 이르렀다.

도서관은 민중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에 대한 원조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장서는 조혜정의 말처럼<sup>1)</sup> 오히려 그 이용자로 하여금 '지배담론에서 규정한 단일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그래서 주체성과 능동성을 잃은, 또 다양성이 무시된 존재로 살아오는' 침묵의 문화를 영속시키는 일에 동조해 왔다는 혐의를 짊어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교양주의라는 외피를 둘러쓰고 있는 도서관 장서더미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도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장서연구의 필요성과 주요 해결 과제,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1)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 각자 선 자리에서(서울 : 또하나의문화, 1994), p.159.

## 2. 장서문제의 중요성

내가 장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그 이유를 딱히 꼬집어 내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80년대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 ‘민중에 대한 원죄의식’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어쨌든 도서관의 장서문제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은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나타났다. 1993년 8월에 제출된 석사학위논문은 「도서관 현상을 통해 본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 논문은 부산지역 도서관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도서관의 이용자 인식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지만,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조사와 실무자들과의 면담 등과 같은 경험적인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한 비구조적인 자료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노동운동과 문화운동, 지역주민운동 등의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면서 인근의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책을 매개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공간을 말한다.

지금도 큰 변화는 없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도서관은 학생들과 주부들로 북적거렸지만, 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는 인근 지역 공단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어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도서관의 개관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점과 함께, 노동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만한 자료가 도서관에 별로 없었던 반면, 도서관의 자료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자료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을 도서관의 이용자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이용자 층의 확보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그 논문이 나온 이후 나는 현장의 사서들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특강을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장서문제에 대한 두 번째 관심은 우리 사회의 근대성(modernity)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근대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 설정되었으며, 도서관은 그 이념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자리 매김 되었다.

나는 ‘근대성과 도서관’이라는 화두를 놓고 꽤 오랫동안 씨름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상에서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가려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는 여러 각도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로 정리되는 기술의 근대성은 성장과 건설에 대한 물질적 추구에 다름 아니며, 특권을 가진 인간들에 대한 승리로서의 해방의 근대성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침투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식의 진단<sup>2)</sup>을 이념으로서의 근대성과 그 실현도구로서의 도서관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혼자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도 큰 작업

2) 김경일, “중세의 정신, 근대의 문명,” 역사비평, 제29호(1995, 여름), pp.57-71.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기술의 근대’와 ‘해방의 근대’ 사이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문제를 진단해 내기 위한 몸부림은 그 방향을 부분적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즉 ‘근대성과 도서관’이라는 화두가 도서관의 장서정책이 갖고 있는 교양주의의 본질을 규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더미를 지배하고 있는 교양주의의 본질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내가 이렇게 장서의 문제에 집착하는 데에는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 주변의 주된 담론은 1990년대 초반의 도서관 전산화에 이어 지금은 이미 디지털 도서관을 지나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논의로 무성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보 고속도로를 닦아놓아도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지식과 정보의 양과 내용이 부실하다면 그것은 결국 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광케이블 망을 타고 흐르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의 콘텐츠(contents)이며, 그것도 소모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건질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얼마 안 되는 비교적 건질만한 콘텐츠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이라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적 콘텐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서관의 서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장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관점의 부재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적인 것의 배제이다.

누구든지 구매자의 기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점가는 물론이고 전문가의 ‘선정’의 과정을 거친 도서관의 서가를 조금이라도 관심 깊게 살펴보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류 성향’들이라는 것이 ‘교양인’과 ‘상식인’을 강조하고 ‘말 잘 듣는 사람’과 ‘복종’을 미덕으로 칭송하기도 하며, 모든 사회 조건을 무시한 채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는 식의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성향의 책들은 생활적인 것과 사회과학적인 것을 배제시키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 개혁에 무력해지게 만들거나 부당한 모순에 대한 위안만을 안겨다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 이런 성향의 장서들 속에서 ‘반역사성’, ‘반사회성’, ‘비사회과학적’, ‘유심론적’, ‘반공·보수·우익’, ‘심미’, ‘사대’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은 수많은 독서운동가들의 단골 메뉴 속에 주된 양념으로 녹아들어 있으며,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대중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의 공통된 이념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이 매달려온 개념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개념들은 도서관의 역사적 존립근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본질을 ‘인간의 존재론적 사명’과 관련시켜 놓고 볼 때 지금까지의 도서관이 매달려 온 것이 ‘허위적 주변(peripheral) 이념’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허위적 주변이념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식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 동시에 대중들을 '비판적인 각성과 반응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함몰'시킴으로써, 현재를 길들이려고 시도하고 또한 길들여진 현재가 끊임없이 재생되도록 획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침묵의 문화 속에서 지배담론이 규정한 단일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그것은 사회적 의제의 빈곤과 왜곡이 낳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서연구는 도서관의 장서가 지금까지 매달려 온 이러한 허위적 주변이념의 실체를 벗겨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 3. 탈식민성 담론과 장서 연구

한편 장서연구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교수진과 대학원 학생들로 이루어진 공동작업실이 함께 추구해온 '글쓰기의 혁신'과 '탈식민성 담론 연구'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동작업실에서는 그 동안 도서관 현장의 개선과 사회과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글쓰기의 혁신'과 '탈식민성 담론 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구체화된 형태들이다.

먼저 글쓰기의 혁신은 주제의 혁신, 연구방법의 혁신 그리고 문체의 혁신이 그 뼈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제의 혁신은 우리의 현장에서 연구 테마를 건져 올리는 것을 말하며, 연구방법의 혁신은 테마가 품고 있는 드라마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연구자의 통찰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질적 방법의 최대한 활용을, 그리고 문체의 혁신은 딱딱한 논문 형태의 글보다는 '잡스러운' 글쓰기를 지향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동작업실에서 펴낸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김정근 엮음, 한울, 1996)와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김정근 엮음, 한울, 1998)라는 두 권의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탈식민성 담론 연구는 화려한 서양식 담론이 우리 현실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서양을 준거틀로 삼는 우리 학계의 오래된 학문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문헌정보학의 현단계와 실천성을 고민해 오던 중에, 서구사회가 자신들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이론과 방법을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들여와서는, 그것으로 우리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한국 사회과학의 주류담론의 지위를 차지해 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주류담론의 역사성과 현실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학문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들이 토착화 또는 한국화의 이름으로 사회과학의 각 개별학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들은 문헌정보학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를 관류하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이를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으로 범주화시키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과학의 제하위 분야에서의 개별적 움직임이 서로를 발견하여 자각된 연대 속에서 맺어졌을 때 이 땅에서 사회과학의 유용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대는 탈식민성 담론에 대한 초록작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우선 일차로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다섯 개 분야의 탈식민담론에 대한 분석과 초록작업이 완료되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민족문화》 제10집(1997)에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I·II」로 발표되었다. 여기에 이차 작업으로 진행된 언론학, 인류학, 여성학, 문헌정보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6개 분야가 추가되어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sup>3)</sup> 이러한 작업은 해방 후 한국 사회과학이 한국적 사회현실을 이해하고 규명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의 그 역할과 지위를 성취해 가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한 담론구성이 미약한 분야에 자극과 격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서연구가 공동작업실의 ‘글쓰기의 혁신’과 ‘탈식민성 담론 연구’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위에서 약속한 논제와 방법, 문체의 부분에서는 ‘글쓰기 혁신’의 태도를,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탈식민성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글이 일반 독자에게 충분히 와 닿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일 것, 현장 중심적일 것, 그리고 쉬울 것의 세 가지이다. 장서연구는 바로 이러한 조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 II. 도서관 장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1. 지식정보사회

현대사회에서 정보란 말만큼 흔하고, 어떤 다른 말이라도 붙여 쓰면 뜻이 통하게 되는 말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라고 불릴 만큼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세 가지 전환점으로, 인간을 정착하게 만든 농업혁명과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산업혁명에 이어 정보혁명을 꼽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정보과다사회이다.<sup>4)</sup>

그러나 ‘정보의 흘러넘침’이란 말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sup>5)</sup> 하나는 ‘정보의 바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쓰레기’

3) 김정근 엮음,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서울: 지식산업사 2000).

4) D. Bell은 현대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교육이 사회계층화의 주요 인자가 되며, 이론적 지식이 사회혁신과 정책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D. 벨,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구조, 이동만 옮김(서울: 한울, 1987). 현대 정보사회에 대한 벨의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자본이 담당했던 역할을 후기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과 정보가 그 역할을 일정한 정도 대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이와 관련된 문제를 도서관과 관련지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김정근 편, 디지털 도서관 - 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서울: 민음사, 1997)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로 표현되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우선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술과 데이터 통신기술의 발달에 근거한 '정보의 바다' 편에 설 경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어떤 정보든지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쉽게 뛰어 넘을 수 없는 몇 가지 함정이 가로놓여 있다. 이 함정은 몇 개의 예만 들어보면 바로 드러난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누구나'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함정이다. 우선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가의 컴퓨터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장비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제품의 급속한 등장으로 인한 하드웨어의 상대적 수명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 가격은 날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라는 말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대학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장비에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장비를 구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며,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따라잡는 것 역시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밖에도 '누구나'라는 말에 주저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요소는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사회에서는 선택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두 번째 함정은 '원하는 모든 정보' 속에 담겨있다. 정보는 주로 종이와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며, 종이형태의 정보 중에서 극히 일부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재생산된다. 물론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되는 정보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식으로든 종이형태로 된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생산자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들어맞는, 즉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생산·유통된다. 따라서 가치 있는 모든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며, 게다가 모든 정보가 양적·질적으로 같은 비중으로 유통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축적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선택되며 변환 또는 왜곡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정보의 쓰레기'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현대사회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정보를, 많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 차이를 제거한 상태로, 원한다면 볼 수 있는 -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볼 수밖에 없는 -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실하며 유효한 정보를 가려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성공한 것은 음란정보와 광고뿐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정보화의 체제 속에서 우리 역사와 사회에 책임 있는 지식의 유통은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sup>6)</sup>

## 2. 지식과 정보의 왜곡 현상

현대사회의 지식·정보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홀리넵침’ 문제와 맞물려 고려해야 할 것은 ‘지식과 정보의 왜곡현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흐름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문화나 정보의 독점 혹은 종속 현상은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급, 사회의 각 영역들 사이에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점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후기 구조주의자의 한 사람인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지식이 절대군주의 권위를 대신해서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지식을 사회통제의 도구로 삼아 누가 정상인이고 누가 비정상인 인지 구분해 놓고, 그 구성원을 통제하고 심지어 길들인다고 까지 주장한다.<sup>7)</sup> 푸코의 말을 빌린다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 사회가 현실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 매체만 보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문과 방송, 서적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통신도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서적은 방송이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폭과 깊이 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서적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등의 매체들처럼 한두 시간 안에 시작과 끝이 있거나 신문처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 꽤 긴 시간에 걸친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만 소화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책은 어느 매체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이 들며 때로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책이야말로 강요된 읽기 훈련을 통해서만 계속 읽을 수 있는 매체이다.<sup>8)</sup>

그만큼 책이 나타난 내용은 의식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매체들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책의 영향은 보다 장기적이며, 때로는 몇 세대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책의 영향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당장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다. 뿐만 아니라 책의 영향을 검증해 내는 작업도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책은 개인 장서의 형태,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에 배열되어 있는 형태 등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개인장서의 경우 학술서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서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시 읽히는 것이 보통이다.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의 경우도 신간 위주로 그 유통경로가 극히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이에 비해 도서관의

6) 김영민, “책의 운명-정보혁명과 ‘뿌리 깊은 진보,’” 출판저널, 제218호(1997. 7. 20), p.9.

7) 조흠, “힐, 뭉, 그리고 성-미셸 푸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물과 사상 4(개마고원, 1997, 11), p.309.

8) 이중한, 위의 글, p.6.

장서로 존재하는 책은 끝없이 축적되며 그 영향 또한 다른 존재형태에 비해 훨씬 지속적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는 도서관 장서의 영향은 그 중에서도 으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책 한 권 한 권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도서관 장서의 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도서관의 장서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축적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선택, 변환 또는 왜곡되어 왔거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 장서에 대해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KDC 분류번호에 따라 가지런히 정돈된 저 서가의 내면에도 질서란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도서관의 서가에는 누군가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반드시 어떤 흐름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 경향은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장서에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눈에 쉽게 띄는 우세한 특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음모와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공간이 더 클 것이다. 장서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정책이 아예 실종되어버린 경우라면, 도서관의 서가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장서들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의도, 편향성, 이데올로기 또는 특징 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 본질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본질과 훌륭한 서가의 기준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왜곡이나 편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때로는 교정되기도 했을 것이며, 때로는 조장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제법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를 고착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치유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도서관은 민중(이용자)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민중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에 대한 원조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sup>10)</sup> 고 하는 것이 도서관 활동의 중요한 노선의 하나라고 볼 때, 다음의 진술들은 도서관의 장서를 지칭해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책에 대한 혹은 책을 통한 현실통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지배담론에서 규정한 단일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인지해 왔고, 그래서 주체성과 능동성을 잃은, 또 다양성이 무시된 존재로 살아왔다.<sup>11)</sup>

‘침묵의 문화(culture of silence)’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와 무기력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배 및 가부장적 사회상황 전체에서 비롯되는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세계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갖추어지고 자극 받은 것이 아니라,

9) 신간서적의 경우 그 수명이 갈수록 짧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3~6개월 내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으면 쉽게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70%의 간행물이 독자에게 가보지도 못하고 폐지로 처분된다고 한다.

10) 이와미 다카시(石見尙), 圖書館의 時代(愚堂圖書館, 1994), pp.86-87.

11) 조혜정, 전개서.

오히려 비판적인 각성과 반응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함몰되어(submerged)' 있었다. 프레이리는 기존의 모든 교육제도가말로 이 침묵의 문화를 영속시키는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sup>12)</sup>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보다 더욱 무서운 게 언론의 '의제 조작'이다. 사람들은 보통 언론이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느냐에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이 어떤 사건은 보도하고 어떤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의제 설정' 기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어떻게' 이전에 '무엇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sup>13)</sup>

이씨의 성공비결은 단지 그의 문학적 재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학과 언론이 뜨겁게 유착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어떤 문인도 언론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씨는 그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 덕분에 기존의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그 매개가 바로 언론이다. 우리 언론은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을 수호한다.<sup>14)</sup>

위의 진술들을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처음의 진술처럼 한 문화인류학자가 우리 사회에 대해 내린 진단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을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도서관의 장서가 지배담론에서 규정한 단일한 모습으로 구축되어 왔고, 그래서 이용자를 주체성과 능동성을 잃은, 또 다양성이 결여된 형태로 존재하게 하는데 일조 해 왔다.

두 번째 진술에서는 침묵의 문화를 영속시키는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로서 기존의 모든 교육제도를 들고 있다. 벨의 지적을 빌리면 이 '기존의 모든 교육제도'야말로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계층화의 주요 인자가 된다. 도서관의 장서 또한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 역시 도서관의 장서와 관련시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제 사서들은 '침묵을 조장하는 장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와 무기력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배 및 가부장적 사회상황 전체에서 비롯되는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구축해온 장서들이 이용자들에게 자기세계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갖추어지고 자극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인 각성과 반응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함몰시키는(submerge)' 것이었다. 사서들은 기존의 대부분의 장서야말로 이 침묵의 문화를 영속시키는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언론의 의제 조작은 도서관의 자료선택에 연결된다.

도서관의 자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내용의 왜곡이나 편파성보다 더욱 무서운 게 자료 선택 과정에 나타나는 '의제 조작'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료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12)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성찬성 옮김(광주, 1986), pp.10-11.

13) 강준만, 인물과 사상 1(개마고원, 1997, 1), p.59.

14) 강준만, 인물과 사상 3(개마고원, 1997, 8), p.24.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서관이 수서 과정에서 어떤 책은 구입하고 어떤 책은 구입하지 않는 ‘자료 선택’ 기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어떻게’ 이전에 ‘무엇이’ 도서관의 서가에 배열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을 수호하는 언론이 문학과 맺고 있는 관계는 그대로 도서관의 장서에도 연결되어 적용된다.

이씨의 책이 도서관의 장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지 그의 문학적 재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의 장서가 언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어떤 문학작품도 언론의 도움 없이는 도서관의 장서로 쉽게 채워지지 못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이념과 정치적 성향 덕분에 기존의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그 매개가 바로 언론이다. 우리 언론은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을 수호한다.

침묵을 조장하는 장서,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갉아먹는 도서관 장서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러운 처사일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큼은 남겨두어야 한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이고, 이 체제는 고도의 정보처리 기구로서 자기변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식의 조작에 드는 비용을 낮춰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sup>15)</sup>

결국 정보 과다인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바다’와 ‘정보의 쓰레기’ 중에서 그 어느 입장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식과 정보가 진실이며 유효한가를 선별하는 문제의식과 그 능력이 이 시대를 헤쳐 나가는 기본 화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 3. 한국사회 지식흐름과 도서관 장서

지식·정보 집적의 전형적인 형태가 도서관의 장서라고 할 때, 도서관의 장서가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가 현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의 회복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행동양식을 지니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축적은 개별적인 지식과 정보가 갖고 있는 편향이 단순한 축적 상태를 넘어 확대·증폭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현실을 쌓아 올리려는 ‘기정사실화’의 연속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도서관의 장서가 이런 형식으로 축적되어 왔다면,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화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비뚤어진 삶의 방식을 경고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편보다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고 조장하려고 하는 방향’<sup>16)</sup>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복거일, “포스트모던 문화의 글쓰기와 저자,” 출판저널, 제110호(1992, 7. 20), p.14.

16) 李五德, 詩精神과 遊戲精神, 제5판(서울 : 創作과 批評社 1990), pp.11-12.

실제 인류의 역사상 도서관의 장서가 때로는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화의 수단으로, 또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임노동자의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적절히 통제되고 왜곡되기도 했던 사례들을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효용가치란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지식흐름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도서관 장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새롭게 제기되게 된다.

우선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도서관 장서의 축적과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다.

첫째, 과연 우리나라 도서관이 진실 되며 유효한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장서를 구축해 왔는가?

둘째, 도서관의 장서가 수집과 축적과정에서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 등으로 인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도와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의 현대 도서관이 이러한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요구되는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해 왔는가?

넷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이 사회가 현실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도서관의 내·외부적 환경이 도서관의 장서의 축적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련된 것으로서, 도서관의 장서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편향성, 도서관 직원들이 갖고 있는 편견 등과 함께 주로 도서관의 사회사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축적된 결과로서의 도서관 장서에 대해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첫째, 도서관 장서가 갖고 있는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급, 사회의 각 영역들 사이의 지식·정보가 양적·질적인 균형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 현실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지식과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는 또 어느 정도인가? 다시 말해 이 질문은 도서관의 장서가 '침묵을 조장하는 장서' 쪽인가, 아니면 '비판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쪽에 가까운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관련된 것은 도서관 장서의 실제에 대한 분석으로 그 정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Ⅲ. 장서연구의 과제와 방법

앞에서 도서관의 장서가 편견과 왜곡, 허위와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가 현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의 회복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행동양식을 지니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물음들은 우리나라 도서

관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얼마나 충족시켜 왔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만일 이 문제를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접근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것은 도서관 장서가 갖고 있는 진리와 허위를 판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만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관이 충분히 발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근대경험으로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이 근대의 식으로 성숙되기 전에 식민지 상태가 초래되었으며, 이어서 타율적 해방, 민족분단, 전쟁, 급속한 자본주의화 과정 등을 겪는 동안 근대적인 시대정신이 제대로 뿌리내릴 토대가 될 만한 계기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이런 식의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관념성과 추상성의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렇게 될 경우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며, 어쩌면 상당한 부분이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점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대표될만한 도서관을 사례도서관으로 선정해, 그 도서관의 장서를 중심으로 공시적·통시적 접근을 시도하는 작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장서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사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적당한 장서규모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면 족할 것이다.

## 1. 도서관의 사회사

첫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는 작업이다.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 도서관의 장서를 보다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분석해 내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도서관 중심의 단선적인 기술보다는 사회사적인 접근을 통해 도서관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사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사례 도서관에 대한 사회사적 기술에는 다음의 영역들이 포함된다.

우선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기술이다.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주체의 변천 과정과 건물과 시설의 추이, 자료의 정리라든가 열람 형태의 변화 과정, 그리고 관련 법규의 마련과정 등에 대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바뀐다든지, 이전(移轉)이나 개관 사례, 자료의 정리나 열람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확인은, 사회적·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과 함께 도서관 장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 도서관을 거쳐 갔던 사람들에 대한 사회사적 기술이다. 이 부분에서는 시기별 도서관 직원의 실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도서관 정원의 책정 과정과 직원 채용의 방식, 도서관직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를 비롯한 도서관직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 등이 포함된다. 시기에 따라서는 도서관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열등의식이 뚜렷이 드러나는 때도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 역시 장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된다.

또 하나는 장서에 대한 사회적 기술이다. 여기에는 주로 사회사와 관련하여 시기별 장서의 특징과 큰 흐름을 중심으로 기술되며, 자료량에 대한 계량적 기술도 필요한 만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여기에 도서관의 제4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에 관련된 항목이 기술대상에서 빠져있다 그것은 이용자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형성에 미친 요인이 사실상 약할 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상당 부분 흡수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나라의 경우 도서관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2. 장서 형성 과정

두 번째 과제는 도서관의 장서축적 과정에 나타나는 편견과 왜곡, 또는 허위와 조작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다.

원칙적으로 도서관의 장서는 그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두 축으로 하여 축적된다. 도서관 자료의 선택이나 평가에 관련된 이론들도 이와 같이 가치론과 목적론을 한 축으로 하고 이용자 요구론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도서관 내적인 요인들보다는 도서관 장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의 사회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장서의 축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내·외부적 요인들 중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요인들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과 그것이 그대로 도서관의 장서에 반영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현대 도서관사에서 도서관 장서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축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금서 사건'<sup>17)</sup>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정치 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중견 사서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금기(禁忌)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과 이를 통한 사건의 성격구명과 함께, 이런 사건이 도서관의 장서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도서관 장서의 성향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형성의 사회사에 있어서 그 수난은 신속하게 다가왔고 끈질기게

17) 여기서 '사건'은 '정책'으로 표현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금서 정책'이 출판계나 서점계는 물론 도서관에서도 권력기관의 힘을 배경으로 한 폭압적인 횡포의 형태로 발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금서 사건'으로 이름 붙여 서술하기로 한다.

이어져왔다. 이러한 수난사는 도서관 직원들로 하여금 은신처를 필요로 했고, 그것은 직업적 사명이라든가 전문적 자질의 향상, 또는 튼튼한 이용자 집단의 확보를 통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에 무조건 기대는 형식으로 체화되어 갔다. 그 구체적인 발현 형태로서 신문의 출판광고와 서평, 베스트셀러가 한쪽 기둥을, 그리고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도서목록」이 다른 한쪽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태도의 이면을 보면 전자에는 이용자 요구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이, 그리고 후자에는 권력에 대한 복종과 침묵, 또는 동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출판광고이다.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간서적의 광고들은 이미 도서관의 수서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수서 도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을 만큼 그 영향력도 지대하다.

한편 진지한 비판이 결여된 채 칭찬 일변도로 나가는 이른바 ‘주례사’ 식의 신문서평 역시 신문광고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는 사람들 것을 아는 사이니까 그저 적당히 칭찬해주는 서평들’은 형식만 달리했지 또 다른 형태의 출판광고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베스트셀러 목록이다. 이것은 독자들이 작품에 대해 갖고 있는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독서환경이 참된 작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취향을 보다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관 장서의 축적과정을 들여다보면, 베스트셀러는 우리나라 도서관 장서의 특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가장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목록이 갖고 있는 경향을 추적하는 작업 역시 우리나라 도서관 장서가 품고 있는 성향의 일면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베스트셀러가 독자보다는 다른 요인<sup>18)</sup>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과, 독자들로부터 쉽게 외면당해 온 이유를 각종 광고 분석과 스테디셀러와의 비교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출판광고와 베스트셀러 목록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수난 당한 도서관 사서’의 또 다른 피난처로 각종 추천도서 목록이 있다. 추천도서 목록은 권장도서 목록 또는 필독도서 목록 등의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도서관 관련 상을 수여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런 유의 목록들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도서관 직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장도서 목록 역시 다분히 독자들의 기호에 영합한 작품들이거나 교양성을 지나치게 내세운 서적들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 그 한 예로 고전이나 번역물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수요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려운 고전들의 경우 ‘이를 관독할 만한 전문가 층이 극히 얇은 데도 꾸준히 베스트셀러 주변에 머물게 된 데는 지적인 호기심이나 지식인으로서의 의무감 같은 것도 작용하고 있지만 애당초부터 장식용으로 팔린 것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양평 “한국 베스트셀러의 시대적 조감,” 서평문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집(1991), p.26.)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문화부에서 1968년부터 발표해 오고 있는 ‘올해의 추천도서’, 문예진흥원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소년 권장도서목록’, 새마을중앙회의 우량도서 선정목록, 1962년에 제정된 한국일보의 ‘출판문화상’,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출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그 영향이 가장 크고 지속적인 것은 연간 100여 종 이상을 선정해서 각급 도서관에 목록이 배포되고 있는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실 선정목록’이다. 독서교실 행사는 전국 도서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행사로서 이 목록에 포함된 자료는 거의 빠지지 않고 도서관의 장서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 밖의 요인들로서 각종 도서선택에 관련된 이론들과 서점상, 작은 도서관과 도서관 등에 대한 고찰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도서선택의 제이론이란 교육주의적 양서론, 요구론, 적서론, 필요성론, 가치론 등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도서관의 장서정책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도서관과 도서관의 존재 역시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외 서점상과의 관계 등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장서의 성향

그 다음 과제는 실제 도서관 장서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작업이다. 우선 양적 기술로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급, 사회의 각 영역들 사이에 드러나는 도서관 자료의 양적 차이에 대한 기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료의 양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접근 방법이나 관점에 있어서의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를 밝히는 작업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 역시 방대한 작업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향들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는 분야를 추출해 내어 이를 중심으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능한 하나의 과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표본으로 선정된 저작들을 분석한다. 즉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삶의 방식, 사용된 소재, 문장형식, 사물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한다.
- ② 이 작업을 통해서 선정된 저작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수를 차지하는 범주에서 ‘주류개념’을, 그리고 소수를 차지하는 범주에서 ‘대항개념’을 도출해 낸다.
- ③ 주류 주류개념과 대항개념의 핵심저자를 추출해 낸다.
- ④ 이를 통해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핵심저자의 다른 저작을 찾아낸다.

⑤ 주류개념과 대항개념을 대응시키고, 도서관 장서의 사회사 도서관 장서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요인 등과 연관시켜 복합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낸다.

⑥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디미에 나타나는 일정한 흐름이나 경향을 도출해 낸다.

⑦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장서에 바람직한 경향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해 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제해결 모델을 구체적인 도서관의 장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우선 표본 추출 과정에 있어서 '침묵을 조장하는 장서'와 '비판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서'를 구분할 만한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관념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는 분야'를 가려내는 작업은 그 토대가 매우 부실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표본으로 선정된 저작들에 대한 분석 단계 역시 커다란 장벽이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다양한 저작들에 대한 충분한 양의 전문서평<sup>19)</sup>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도서에 대한 본격적인 서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우선 표본을 출판광고와 서평, 그리고 문화부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권장도서목록」에서 추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들 광고나 목록 등이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형성 과정에서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도서관의 수서 담당 사서들이 기대 온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이들 목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에 대한 적지 않은 평가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형편이다.

#### 4. 장서연구의 방법

이런 식의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사회사적 기술이면서 동시에 도서관 장서의 현 단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즉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에 씨줄과 날줄을 통겨놓고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가 현장을 들여다보는 방법론은 크게 '사회사적 접근'과 '현 단계 연구'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역사적 접근, 특히 사회사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 도서관 장서의 현 단계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는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로서의 도서관의 장서가 갖고 있는 성향,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또는 인식론적으로 어떤 입장에 치우쳐 있으며, 그 편향의 정도와 본질을 장서 형성의 사회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한 과정으로서 도서관 장서의 축적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것은

19) 단순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일반서평에 비해 전문서평은 '왜 이 책이 이 시대의 삶과 지식과 지혜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것을 분석적이고도 비판적으로 평가한 서평을 말한다.

역사적 접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 접근은 어떤 사실의 형성과정을 풀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와 같이 가용자료나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시키는 경우도 매우 적절한 연구방법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도서관의 역사에 관련된 기술은 도서관 자체에 대한 제도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달동네 사람들이 못사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달동네만 파고들면 답이 나오지 않거나 틀린 답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부정축제 또는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폐돈을 버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sup>20)</sup> 일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도 그 내적 측면으로부터 해방시켜 폭넓은 사회·역사적 자장 안에 놓는 사회사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이 사회적 기관이라는 기본명제를 확인하고, 도서관을 그 근저에서 유지·변화·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사회적 역학관계를 확인함으로써<sup>21)</sup> 도서관 장서 형성의 실질적 동력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다른 모든 논리에 우선해서 사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선적인 역사기술은 명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서관 내부의 요인들보다는 사회적 역학관계라는 보다 큰 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배제하면서 쓰는 역사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도서관 현실을 문화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포자기와 패권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사회사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이 여기에 있다.

다음은 현 단계 연구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sup>22)</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후한 현장, 거기다 참고문헌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다운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자의 시각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헌세계로 이동시켜 맞추었다고 했을 때 바로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이었다. 어떻게 참고문헌을 구하며 어떤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여 그나마 현실개척에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느냐의 문제였다. 여기서 필자들과 주변의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해낸 것이 '현 단계 연구'(studies of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쉽게 말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술해 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문제 자체 속에 함장 되어 있는 해답이 떠오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형식을 띠는 이른바 '과학적'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현 단계 연구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우선 태생적으로 그것은 우리 현장에서 논제를 건져 올리도록 했다. 처치과정으로는 주로 질적 방법을 취했다. 왜냐

20) 강준만, 인물과 사상 2(개마고원, 1997, 6), p.57.

21) 이현식, "한국 근대 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 민족문학과 근대성(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5), pp.67-68.

22) 김정근, 박인웅,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 연구," 1945-1995, 韓國民族文化(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10집(1997, 12), pp.5-6.

하면 다양한 드라마를 품고 있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에는 연구자의 통찰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으며 특수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적 기법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연구문헌들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인터뷰 기법은 연구자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밖에 없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문체 문제였다. 우리 현장의 현 단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어 그 속에 배태되어 있는 드라마를 노출시키기에는 이른바 간결한 논문문체는 부적절했다. 복잡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복잡한 그릇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문체의 실험이 요구되었다. 이 대목에서 ‘잡스러운’ 글쓰기라는 기법이 채택되기도 했다.<sup>23)</sup>

여기에는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서 현 단계 연구의 필요와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현장 중심의 문제설정과 질적 방법론 채택, 그리고 그것을 글로 그려내는 문체 등을 중시하게 된 과정이 드러나 있다. 연구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주로 ‘사려 깊은 관찰과 효과적인 면담’을 통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특수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적 연구<sup>24)</sup>를 채택하게 되는 배경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한편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기록된 문서자료보다는 이 시기를 몸으로 헤쳐 나갔던 사람들의 증언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20세기 들어 90년 이상을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자료에만 근거하는 역사는 원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sup>25)</sup>는 한 인문학자의 지적처럼, 절차라인을 통한 업무보고 문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는 진솔한 이야기가 인터뷰 내용 속에 담겨있다고 믿기 때문이다.<sup>26)</sup>

- 
- 23) 연구자 주변에서 현 단계 연구를 주제화하여 발전시킨 글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김정근, 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제22집(1995), pp.27-59.  
 김정근, 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제24집(1996, 여름), pp.107-161.  
 김정근, 김종성, “현 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집(1997, 9), pp.23-51.  
 김정근, 이수상, “현 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집, 제1권(1997, 3), pp.125-151.  
 김정근,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대화의 학문인가, 독백의 학문인가?,” 도서관계(1997, 1·2), pp.3-7.  
 김정근, “도서관 담론에 나타나는 ‘가벼움’의 기원에 대하여,” 도서관문화(1997, 7·8), pp.22-29.  
 김정근,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실천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열린지성, 제3호(1997, 겨울), pp.83-99.
- 24) 질적 연구나 참여관찰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은 다음의 자료에서 구할 수 있다.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서울 : 한울, 1996).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서울 : 한울, 1998).  
 Sharan B. Merria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88); 허미화 역, 질적사례연구법 - 교육학에서의 -(양서원, 1994).  
 James P. Spradley, 文化探究를 위한 參與觀察方法 (Participant Observation), 이희봉 옮김, 제4판(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James P. Spradley, The Ethnographic Interview(Harcourt Brace Ja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79).
- 25) 강준만, 전계서, p.35. 이 인용문에 연결된 말은 다음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역사란 민초의 수난과 고통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땀과 피 위에서 구축한 실적만을 기록하는 법이다. 그 실적을 과대 포장한 문건들을 한 아름 끌어안고 박정희를 재평가하자고? 그건 똥간의 휴지를 끌어안고 인간을 재평가하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26) 물론 이런 식의 접근법이 경험주의에 매몰되어 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 IV. 결 론

지금까지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식·정보의 왜곡 현상과 이 현상이 도서관 장서의 굴절이나 편향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접근방법에 대하여 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극좌 노선에서 극우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백야쟁명 시대였던 1920년대를 거쳐, 그 이후의 대부분의 시기는 모더니즘과 패배주의, 복고주의, 현실도피 경향, 탈정치화, 개인의 출세와 생존 중시, 이념적 지표의 상실 등이 어울려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을 형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20년대와 1980년대는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sup>27)</sup> 물론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세계체제 속에서 형성된 냉전논리와 그것의 한국적 발현 형태인 분단이데올로기의 반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심각하게 굴절시킨 근본 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사회·역사적 상황은 도서관의 장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주류 담론' 중심의 편향된 장서를 구축해 왔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장에서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도서관의 장서가 오히려 '사회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일'<sup>28)</sup>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의 축적과정을 한국 사회 지식흐름의 문제라는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역사적인 틀 속에서 재조명해 보는 작업이 새로이 요청되며, 그것은 현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의 회복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의 운영과 직원, 그리고 장서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과, 축적된 결과로서의 장서의 성향에 대한 현 단계 연구가 새로운 연구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사려 깊은 관찰과 효과적 인터뷰 기법을 통한 현 단계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도서관의 장서에 시대정신의 안착을 통한 지식자원의 적극적 관리라는 개념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도서관 장서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석준은 "어떤 특정한 이론 틀이나 개념도식에 따라 현실을 짜 맞추거나 재구성하기보다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서울 : 한울, 1993), p.28.

27) 김동춘·김성기, "가망 없는 시대에 맞서는 한 사회과학자의 외침," 현대사상(좌담), 제1권, 제4호(1997, 겨울), pp.228-229.

28) 조혜정, 전게서, p.277.

## 참 고 문 헌

- 김동춘·김성기. “가망 없는 시대에 맞서는 한 사회과학자의 외침.” 현대사상(좌담), 제1권, 제4호 (1997, 겨울).
-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서울 : 한울, 1993.
- 김영민. “기지촌의 지식인들 - 탈식민성과 우리 학문의 자생성.”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6.
- 김정근 엮음. 디지털 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 \_\_\_\_\_.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 한울, 1996.
- \_\_\_\_\_.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울, 1998.
- \_\_\_\_\_.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서울 : 지식산업사, 2000.
- 김정근. “도서관 담론에 나타나는 ‘가벼움’의 기원에 대하여” 도서관문화 (1997, 7 8), pp.22-29.
- \_\_\_\_\_.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실천적’ 글쓰기란 무엇인가?” 열린지성, 제3호(1997, 겨울), pp.83-99.
- \_\_\_\_\_.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대화의 학문인가, 독백의 학문인가?” 도서관계(1997, 1 2), pp.3-7.
- 김정근·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제2집 (1995), pp.27-59.
- 김정근·김종성. “현 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집 (1997, 9), pp.23-51.
- 김정근·이수상. “현 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집, 제1권 (1997, 3), pp.125-151.
-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제24집 (1996, 여름), pp.107-161.
- 복거일. “포스트모던 문화의 글쓰기와 저자.” 출판저널, 제110호 (1992, 7. 20).
- 李五德. 詩精神과 遊藝精神 (제5판). 서울 : 創作과 批評社, 1990.
- 조혜정.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 각자 선 자리에서. 서울 : 또하나의문화, 1994.
- Merriam, Sharan B.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88.
- Spradley, James P. 文化探究를 위한 參與觀察方法 (Participant Observation). 이희봉 옮김 제1판.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к с і